

일부 중도시 부인의 산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순천간호전문대 논문집 3집, pp. 61~71, 1977.

이 경 속

A. 결 론

1977년 8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한달에 걸쳐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20~40세까지의 유배우 가임여성 250명을 대상으로 산전진찰 및 산전관리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상부인의 연령분포는 36~40세군과 41~45세군이 24.4%로 가장 많고 평균연령은 36.6세였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36.4%로 가장 많고 대부분이 중학교 이상 졸업자로 75.2%를 차지했다.

2) 임신경험 회수는 3~4회 경험이 35.2%로 가장 많고 평균 임신회수는 4.2회였으며 교육정도별 임신회수는 무학력군이 평균 6회로 가장 많았고 대학졸업이 평균 3.4회로 가장 적었다. 현재 자녀수는 3~4명군이 44.8%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현재 자녀수는 3.5명이다.

3) 산전진찰에 대한 인식은 이미 산전진찰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군이 88.8%의 높은 비율이었으며 이들중 산전진찰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군은 96.4%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산전진찰에 대한 정보수집은 책을 통하여 알았다가 30.6%로 제일 많고 보건요원을 통하여는 11.3%로 낮은 분포이다. 진찰시기는 규칙적으로 받아야 한다가 68.2%이고 이상증상이 있을때만 받는다는 군은 26.6%이다. 교육정도별로 옳게 알고 있는 군은 대졸이 8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전진찰을 받은 군은 73.2%이며 교육정도별로는 대학졸업이 92.9%이며 연령별로는 21~25세군이 84.6%에 제일 높은 비율이다.

4) 대상부인들의 주관적인 임신 판단에 대한 증상은 오심, 구토가 48.4%, 무월경이 43.6%로 나타나 대부분 월경이 없고 오심, 구토가 있으면 임신으로 판단하고 있다.

5) 임신중 영양섭취는 37.6%가 임신전과 똑같이 먹으며 대학군에서는 골고루 균형 있게 먹는다가 53.6%이다.

6) 임신중에 90.4%가 입덧이 있었고 입덧시기는 공복시 어느때나 온다가 34.1%이다 처치는 정상이니 그대로 둔다가 42.5%이며 일어나기 전에 마른 음식을 먹는다는 15.0%이다.

7) 임신중 젖손질은 실시한다가 45.6%이고 36~40세군이 28.9%, 실시시기는 6~

7개월에 36%가 실시했다.

8) 임신 말기에 애기위치는 머리가 아래로 있다 74.4%이며 대졸군이 82.1%로 가장 높다.

B. 제 언

태내 및 신생아기의 건강은 인체의 건전한 성장발육에 기초가 되므로 무엇보다도 국민건강의 육성은 임신중 산전관리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따라서 본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 및 발견된 사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임신중 올바른 산전관리와 산전진찰에 대한 가임여성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1. 각 종합병원에서 산, 부인과 중심으로 정기적인 임부교실을 마련하여 임부들의 교육 지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2. 중,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중에 임부생리 및 산전관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겠다.

3. 임부의 임신중 산전관리에 대한 계몽 및 실천을 위해 보다 더 활발한 매스컴 이용이 요구된다.

4.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을 위한 대책이 강구 되어지기를 바란다.

5. 임부관리를 위해 모자 보건요원의 치밀한 계획과 지도가 요구된다.

6. 산욕후증상분포는 치아상태변화 40.7%, 탈모 80.4%, 추위감각변화 51.5%이었다.

7. 추위감각변화군을 제외한 나머지 산욕후증상중에서 변화유무별로 비교할때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8. 추위감각변화군에서는 변화유무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9. 모성의 연령 산후안정일수 산욕관리와 산욕후증상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10. 산욕후증상군의 평균안정일수에는 치아상태변화군 17.3일, 탈모군 18.4일, 추위감각변화군 17.9일이었다.

11. 산욕후증상군의 평균안정일수에는 연령간에 유의한 차가 없었다.

12. 산욕후증상군의 평균 산욕관리성적은 치아상태변화군 9.16, 탈모군 9.15, 추위감각변화군이 9.22점으로 증상군의 산욕관리 정도는 “중”에 속하였다.

13. 탈모군을 제외한 나머지 산욕후증상군의 평균산욕관리 성적은 연령간에 유의적 차가 없었다.

14. 탈모군의 평균산욕관리성적은 연령간에 유의적 차가 있었다.